

지역 매아리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지킴이 수질오염행위 집중 단속 실시

정읍시는 시민들의 식수원인 옥정호의 수질보호를 위해 4월부터 옥정호 주변의 정화활동과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행사객과 낚시객이 증가하는 이달부터 9월까지 총 14명(남10, 여4)의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를 구성했다. 시에 따르면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어로행위와 쓰레기투기 행위, 낚시 행위, 세차 행위, 레저 행위 등 옥정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과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산내면 주민으로 구성된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는 해당지역의 상시 감시·단속이 가능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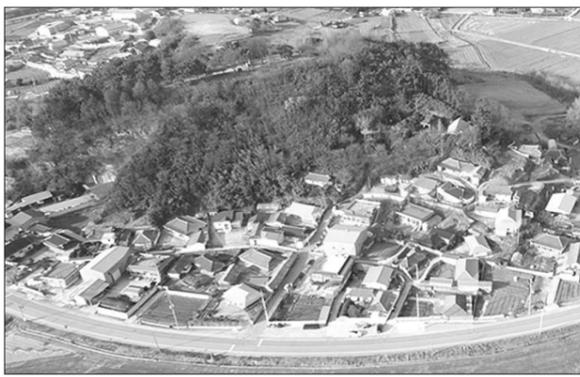
정읍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방역협의회 개최

정읍시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축산관련 단체와 방역본부, 공수의사, 동물위생시험소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확산에 따른 대책이 논의됐다. 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지난 2월 19일 발생 이후 현재까지 208건이 발생했다. 급격한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주변 동남아 국가로의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여행객이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돼지고기 가공품 4건(소시지 3건, 햄버거 1건)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확인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나 돼지와 야생멧돼지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전염병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이병률(罹病率)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로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이에 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수칙 교육과 홍보 등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양돈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리플릿을 배포하고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부안군 백산면 회포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부안군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19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공모사업 대상지로 부안군 백산면 회포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백산면 회포마을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장마철 야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토사 등으로 주택이 침수 되는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회포마을은 동학공원 조성사업 등 백산면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마을의 여건개선 및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부안군은 2015년 진서면 왕포마을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부안군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19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공모사업 대상지로 부안군 백산면 회포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원(국비10.5억, 도비 1.35억, 군비3.15억)을 투입해 마을안길정비,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배수로 정비 등 마을 기반시설 설치사업, 슬레이트 지붕개량, 빈집정비 등 주택정비사업, 노후담장정비 및 벽화사업 등 마을환경개선 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안군은 2015년 진서면 왕포마을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권익현 군수는 “2019년 대상으로 선정된 회포마을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취약지역 대상을 발굴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는 등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손님맞이 군민참여운동 천명

권익현 부안군수가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제7회 부안마실축제 및 2023 부안 세계스키우트잡버리의 성공개최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1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4월 중 월례조회에서 “어느 지식이 말하기를 국가경쟁력은 준법 의식에서 나오고 준법 의식은 기초질서부터 시작하며 기초질서는 운전자의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과 같은 작은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것에서부터 사회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상 우리는 늘 관광객의 발걸음에 귀 기울이고 관광객의 시선을 살펴야 한다”며 “가깝게는 오는 5월 4일부터는 열리는 제7회 부안마실축제에서 멀게는 2023 부안 세계잡버리에서 수많은 관광객을 맞이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

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초질서를 확립해 부안군의 첫인상을 바꿔나가자”고 주문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이달부터 2023 부안 세계잡버리 성공개최 등을 위해 손님맞이 군민참여운동을 추진한다”며 “친절과 청결, 질서 등 3개 분야에 걸쳐 전개되는 이번 캠페인은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 전 군민의 일상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 대표축제인 제7회 부안마실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축제는 관광객들만이 아니라 군민들이 즐기는 축제가 성공한 축제이다. 개·폐막식은 물론 축제 프로그램에 군민들이 다각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미술관 가는 길 아트로드 조성사업 본격 추진

정읍시가 미술관 가는 길을 지역 특성이 반영된 디자인을 통해 아름답고 매력 있는 거리로 조성한다. 관련해서 시는 4억원을 들여 청소년 수련관에서 미술관까지 150m에 이르는 ‘아트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미술관 가는 길을 지역 작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작가들에게는 작품전시 공간을, 시민에게는 작가와의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인도 정비와 도로 아스콘 포장 등 기반조성사업을 먼저 추진한다. 여기에 우리나라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경관조명과 쉼터, 조형물 등도 설치된다. 특히 시는 계획단계부터 지역 작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디자인에 반영해 가로경관과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진 공간을 연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일대에 정읍시공민과 정읍시예술회관 등과 연계해 관광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미술관 아트로드 조성사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정읍시의 매력적인 역사·문화자원과 접목해 독특한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지난 30일 고창읍성 잔디광장에서 ‘선사시대-우리들의 오래된 미래’가 성황리에 열렸다.

선사시대부터 미래까지 지역이야기 예술로 풀어낸다

고창군, ‘한반도첫수도 고창시간 여행’ 첫 번째 프로그램 성황리 열려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이 선사시대부터 2040년 미래까지의 지역 이야기를 문화 예술축제로 풀어낸다. 지난달 30일 고창읍성 잔디광장에서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시간 여행’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선사시대-우리들의 오래된 미래’가 성황리에 열렸다. 1부 행사에선 설치미술 송편고인돌, 고창보리밭체험, 민속놀이 13종 놀이가 진행돼 남녀노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부로 진행된 ‘뮤지컬 드림오브고창, 한반도 첫수도’에선 3000년 전 ‘모랑’과 ‘보리’의 사랑이야기를 기반으로, 무용과 태권무, 판소리가 하나 되는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오랑개와 싸움 중에 전사한 주인공 ‘모랑’을 고인돌 무덤에 안치하기 위해 한반도 대표들이 고창에 모이고, 연합국가 결성, 수도 결정 과정을 긴장감 있게 풀어냈다.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시간여행’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지역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국비 1억원을 지원 받아 진행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 이달 6일부터 가동

정읍시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가 오는 6일부터 가동 된다. 시는 이달 28일까지 주말 오후 2시와 5시(2회)에 시험 가동한 후 6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5월부터 10월까지 평일에는 저녁 2회, 공휴일은 4회씩 운영된다. 특히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과 워터스크린을 이용한 DVD 동영상, 레이저 쇼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야외 공연장에서는 각종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공연행사가 수시로 펼쳐진다. 워터파크는 음악분수는 2010년 준공돼 매년 여름 최고의 명물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다목적 광장도 인접해 있어 인라인스케이팅과 보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관련해서 시는 워터파크 광장 내에 바다분수를 규비와 시비 등 총 6억원을 들여 바다분수를 설치한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돼, 이번 여름부터는 워터파크를 찾는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한껏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chi Wine

TEL : 063-584-8980  
www.gangsanwine.com